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5. 7. 30.(수)

한미 관세협상 타결, 대미 수출 불확실성 해소

- 상호관세 25→15%, 자동차 부품 15%, 향후 반도체·의약품 최혜국대우 합의 -
- 우리측은 1,500억불 규모 조선협력 펀드 및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원자력 등 전략산업 분야에 2,000억불 규모 대미투자펀드 조성
- 우리는 자동차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한 시장접근 개선, 에너지 1,000억불 구매를 통해 양국 간 무역불균형 완화 추진 -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은 7.30(수) 17시(미국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끝에 한미간 관세협상을 타결하였다. 6월 新정부 출범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를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이 상호관세 유예시한(8.1일)을 앞두고 관세 인하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으며,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미 간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트럼프 대통령 접견시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산업부 박정성 무역투자실장, 기획재정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참석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8.1일부터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232조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는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여타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1,500억불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조성하여 미국 조선소 인수·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조선 기자재 등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되어 미국내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총 2,000억불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조성하여 반도체, 원자력, 배

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대출·대출 보증을 제공키로 하였다.

한편, 우리는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등 미국 무역장벽보고서(NTE) 상에 제시된 비관세장벽 일부를 완화해 나가기로 하여 미국산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4년간 미국산 에너지를 1천억불(한화로 약 140조원) 구매함으로써 양국은 무역구조를 보다 확대균형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관세협상 타결은 우리 기업 전세계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에 있어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일본, EU 등 우리 주요 경쟁국의 관세협상이 타결되어 8.1일을 기점으로 경쟁력 하락이 예상되었던 바, 이제는 동등한 조건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어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반도체, 의약품 등 향후 발표될 232조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우호적 대우를 보장받게 되어 앞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한 축인 수출이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되었으며, 우리 기업들이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성과”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김 장관은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쳤지만 추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한 바, 끝까지 국익에 기반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산업·통상 수장으로서 의무를 완수할 것을 시사하였다. 여 본부장은 “금번 타결로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글로벌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안홍상 (044-203-5650)
		담당자	사무관	김태우 (044-203-5657)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정주 (044-215-7670)
		담당자	사무관	박지혜 (wp2428@korea.kr)